이재명, 경선 최고득표율 '눈앞'…'호남이 답할때'

김대중 78.04%·노무현 72.2% 기록 깰 듯
호남 '전략적 투표성향' 결합시 최고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충청권에 이어 20일 영남권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로 대세를 형성했다.

누적 득표율이 89.56%에 달해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강원·제주 지역 경선에서도 독주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같은 추세가 어이진다면, 이 후보는 오는 27일 최종 경선이 열리는 서울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7일까지 합산 득표율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후보간에 결선 투표를 예정해 뒀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후보가 78.04%를 넘으면 민주당 대선 경선 사상 최고의 득표율을 경신한다.

지난 15대(1997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새정치국민회의 경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올린 득표율 78.04%였다.

16대 대선(2003년)을 앞두고 시행된 새천년민주당 경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선 득표율은 72.2%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올린 득표율은 57.0%였고, 2021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올린 득표율은 50.29%였다.

역대 최고의 당심 결집이다.

지난 19일과 20일 충청·영남권의 경선에서 올린 김경수·김동연 두 후보의 득표율은 합이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 후보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에서도 독주체제를 유지할까.

지역 정가에서는 아직도 계엄에 찬동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무리가 활개를 치고 있어 진보적 성향의 호남 지역민들이 결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충청·영남권에서도 이런 기류의 영향으로 투표율이 예상외로 높았다.

호남은 항상 어떤 후보를 뽑아야 정권교체가 가능한지를 따지고, 그런 후보가 있다면 전략적 투표성향을 보여왔기에 더욱 그렇다.

더구나 이번 대선이 다음 해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지방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들까지 나서서 표몰이를 하는 상황이다.

호남권 권리당원 수는 광주 7만명, 전남 15만명, 전북 16만명으로 대략 38만명에 달하며, 이는 민주당 전국 권리당원 110만 명의 35%를 차지한다.

따라서 26일 호남에서의 투표 결과가 다른 권역과 마찬가지로 이 후보에 대한 쏠림으로 나타나면 27일 수도권·강원·제주 지역 경선에서도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대선후보경선 사상 역대 최고의 투표율 달성은 무난해 보인다.

이 후보는 지구의 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기후환경 정책 발표문에서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하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사회적 갈등 중 하나인 의료갈등 문제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국회 싱크탱크 미래산업포럼 발족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식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기식 미래연구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박홍근·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김기식 미래연구원장. 연합뉴스

광주시, 4~11월 '김치담그기' 운영

광주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9일까지 매월 둘째·넷째주 토·일요일 광주김치타운에서 '김치담그기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김장철 외에도 언제나 김치를 담그고 싶은 시민 수요를 반영해 지난해부터 운영했으며, 올해는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개최 시기를 4월로 앞당겨 시작한다.

일정은 광주김치타운 다목적체험관에서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며, 참가자는 '이달의 김치'로 선정된 김치 3종을 직접 담가 가져갈 수 있다.

4월의 김치에 배추김치, 총각김치, 파김치가 선정됐다. 특히 5월에는 '나눔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매주 토·일요일에 김치담그기를 운영한다. 또 '동글동글 주먹밥' 만들기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NEWS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5대 광역시 판교형 테크노밸리 도심융합특구 지원방안 구체화

정부가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10년 단위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복합된 공간을 조성하고, 각 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사업이다.

도심융합특구 내에서는 용적률, 높이 등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해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특구 내 기업이 밀집한 지역은 '기회발전특구'로 중복 지정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최초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종합발전계획에는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범부처 지원방안, 선도기업 유치전략, 산업 네트워크 연결 방안 등이 담긴다.

세제 감면과 주거지원 등 기업·종사자 지원 방안도 구체화한다.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과 세부 기준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7년, 전남 국립의대 반드시 설립돼야"

도의회, 정부 2026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 입장문 발표

전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정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동결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2027학년도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면서, 전남 국립의대의 2026학년도 개교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전남 도민의 오랜 염원이 또다시 좌절되고 그 아픔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담화문을 통해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 이번 발표에서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도의회는 200만 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지자체로, 고령화와 도서·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고, 중증 응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의료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도의회는 지적했다.

이어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매년 70만 명 이상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전남의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립의대 설립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의 책무이자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은 정권 변화나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행되어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2026년 의과대학 모집인원 동결 여부와는 별개로, 2027학년도에는 반드시 전남 국립의대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전남의대 설립을 바라는 20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산이정원서 특별한 추억 남기세요"

26일 ESG 프로그램…사생대회·북콘서트 등 다채

전남도는 따뜻한 봄날, 가족 단위 방문객이 자연 속에서 특별한 체험을 즐기도록 해남 솔라시도 산이정원에서 오는 26일 '산이정원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이정원은 전남 최초의 정원형 식물원으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다. 이번 봄 행사는 ESG경영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공연,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가족 단위 관람객과 어린이에게 특별한 봄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내가 꿈꾸는 ESG 세상'이라는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어린이 사생대회가 열린다. 정원의 자연을 직접 느끼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작은 현장 심사를 통해 시상과 함께 산이정원에 전시된다.

가든뮤지엄 2층 카페에서는 'ESG 북콘서트'와 'ESG 에너지 정원 토크쇼'가 진행된다. 김창섭 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김인호 환경교육연구소장 등과 국내 최고의 환경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방문객과 함께 ESG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원 곳곳에는 친환경 머그컵 만들기, ESG 풍경 그리기, 환경캠페인 부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어린이 오케스트라, 태권도 시범, 댄스공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도 진행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